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사랑방공동체 설립 4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주일공동예배 설교는 임채정 선교사님께서 하십니다.
- 멧쟁이학교 도보여행이 28일(월)부터 5월 2일(금)까지 있습니다.
- 꾸러기학교 배개의 날이 28일(월)-29일(화)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 다음 주일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사랑방과 푸른꿈사랑방이 함께 주일예배를 준비합니다.
- 2025년 종합교육과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표는 자연예배당에 있습니다.
- 김영화 권사님이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생활공동체(사랑방공동체 · 교회 설립 41주년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한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17 호

2025년 4월 27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사랑방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온

사랑방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지 4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교회 자체가 세워진지는 약 140년이 됩니다. 돌아보자면 그 옛날 조선의 첫 내한 선교사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호러스 언더우드(한국 이름 원두우·1859~1916)입니다. 언더우드는 서울 새문안교회를 비롯한 24개 교회와, 지금은 연세대로 남아있는 조선기독교대학을 설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낯선 문화와 언어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년에 걸쳐 또 다른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등과 함께 한영 사전을 편찬하며 선교활동을 한 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환으로 사망한 이후에도, 그의 가문은 대대로 한국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더우드의 장남이었던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한국명 원한경)는 일제강점기 연세대의 교장으로서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한국어 학자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언더우드의 손자인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주니어(한국명 원일한)는 한국전쟁에 참여하고 목사가 되어서 교육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언더우드의 증손자인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 주니어(한국명 원한광)는 연세대에서 영문학과 교수로 지내며 5.18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리다가 추방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고, 다시 교수로 재직하여 가문의 기록과 자료들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선교사들은 학교와 치료소와 다양한 모임들을 세웠습니다만 핵심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섬기며, 때론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은 귀향을 포기하고 이 땅에 묻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서, 받은 말씀과 세운 교회를 지키려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길이 비록 피와 평판과 땀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모두 그들에게 빛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의 승계는 이렇듯, 편안하게 전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신앙의 이야기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입니다. 예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의 교회를 이루는 시간, 공간, 인물들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 모두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따라서, 돈이나 건물, 마땅한 시간, 적합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이는 장을 허락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생활을 따라가려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시간이 나 장소나 형편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감정을 떠나서, 선배들의 행적을 본받으려 노력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리고 사랑방공동체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나 교육에서나 많은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왔습니다. 신앙공동체의 탄생과 지속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약점에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함께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거듭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공동체와 더 오래, 형제자매들과 더 깊고 아름다운 사이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 한주간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31, 44 / 446

기도 :

성경 : 출애굽기 31장

제목 :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판

1-10절 온갖 기술

해석: 하나님을 위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적용: 내가 잘하는 것(기술)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자.

12-17절 거룩한 날

해석: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이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드러나도록 한다.

적용: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고 지키자.

18절 증거판

해석: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이므로 변하지 않도록 돌에 새겨 주신 것.

적용: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지키자.

## 어머니와 교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단다!” 어머니는 교회에 가는 주일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 갈 준비를 서둘러 하십니다. 매번 만나기로 한 장소에도 약속 시간에 훨씬 앞서 나와 계십니다. 날이 춥거나 하면 걱정이 되니,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나오라고 말씀드려도 일찍 나오시는 게 습관이다. 오히려 우리 가족이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가 있어 죄송한 마음뿐이다.

어머니는 차에 타면서부터 소풍 가는 어린이처럼 신나 하십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아 걱정이라든지, 길가에 핀 꽃이 예쁘다든지, 교회에 가서 무림방 어르신을 뵙는 게 좋다든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가는 길을 즐거워하십니다. 가끔 아들로서 너무 통명스럽게 대꾸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어머니께서 즐겁게 교회를 다니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내가 처음 사랑방교회에 다닐 때도 지금의 어머니처럼 좋아했을까 뒤돌아보면, 나 또한 교회 가는 날엔 항상 들떠 있었던 같다. 교회에 가면 항상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시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청년 때부터 만난 아내를 비롯한 또래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매달 마지막 주일에 서울 종로를 벗어나 교외로 자연예배를 떠날 때는 그야말로 소풍 가는 설렘을 느꼈다.

이제 자식을 둔 부모가 될 정도로 나이를 먹다 보니, 교회에 오는 마음이 무뎠던 것일까. 다시금 사랑방교회가 창립주일을 맞는다. 만일 사랑방교회가 아니라면 교회를 계속 다니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난 그만큼 교회를, 사랑방 지체들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요즘 여러 일로 지친 모습에 교회 나오는 일이 시큰둥한데,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나오는 게 한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어머니 덕분에 교회 나올 힘을 얻는 듯하다. 어머니 말씀처럼 참 감사한 일이다.

비움사랑방 이충환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 편 84 : 1-4,10 인도자  
10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태복음 6 : 12-13 인도자  
21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사도행전 2 : 17 설교자  
성가대 찬양 아름다운 교회는,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방  
설 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임채정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설교자  
490 다함께  
인도자  
410(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조향민 최신혜 / 봉헌위원 : 김중필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사랑방공동체를 뜻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성령안에서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삶에는 모를 일이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어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41년 동안 사랑방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랑방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공동체 1세대들의 육체의 쇠함이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쇠잔해지는 육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나 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사랑방의 어르신들은 무슨 꿈을 꾸십니까? 천국을 꿈꾸셔야 합니다. 삶의 욕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성령님으로 영혼과 마음을 채우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을 때, 초대교회는 선교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청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꿈을 꾸며, 민족구원과 인류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시며 한손에 복음 들고 한손에 직업을 들고 온 세상을 두루 섬기는 사랑방공동체 다음세대들 되게 하소서.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임상희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점심을 빨리 먹은 꾸러기는 일어나서 자기가 쓴 그릇과 수저를 설거지 모으는 곳에 가져다 두고 놓는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식탁과 바닥청소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한쪽에 준비된 자리에서 그림책이나 퍼즐 등을 가지고 앉아서 놓는다. 그렇게 앉아서 놀던 아름이와 지음이기가 실뜨기를 합니다. 마주 앉아 둘이 한 손씩 모아 실을 걸고 있고 다른 손을 모아 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둘이 호흡을 맞춰 계속해서 있습니다. 어찌나 손이 딱딱 맞는지 얼핏보면 한 사람씩 번갈아 하는 줄 알았겠다 싶습니다.

체육시간에 균형잡기를 합니다. 의자, 책상, 평행대, 타이어, 큰블럭, 철봉 같은 것을 가지고 징검다리, 낭떠러지 비탈길, 외나무다리 등을 닦은 길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연습을 합니다. 실수를 하면 매트에 떨어지거나 교사가 옆에서 잡아줍니다. 친구들이 길에 집중할 수 있게, 기다리는 꾸러기들도 조용히 앉아 차분히 지켜봅니다. 평행대나 높은 곳에 처음 올라갈 때는 손을 잡아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몇 번 하다보면 자기키만큼 높은 평행대를 지나고 그보다 더 높이에 있는 의자나 더더 높은 살짝 출렁이는 매트에 올라서서 사진으로 남길 멋진 포즈를 잡을 수도 있게 됩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한주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예배시간 창세기 45:1~5절 말씀으로 '실패와 후회 너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어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준 것과 같이 하

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베풀며 살고, 어린이학교를 인도해주신 이유를 알고 밝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목요일엔 건강검진을 다녀왔습니다. 내과 ·안과 ·치과에 다녀왔는데 안과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다들 시력이 좋다고 하시며 좋은 곳에서 생활해서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금요일엔 국립수목원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예쁜 꽃들도 보고, 사진도 찍고, 맛난 간식도 먹으며 봄 이야기 꽃을 피우고, 봄 향기를 맡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봄비와 봄바람에 꽃잎들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로 멋쟁이들이 한결 가벼워진 차림으로 돌아다닙니다. 부활절 휴교로 월요일에 등교했기 때문일까요? 얼굴들이 후련하고 밝습니다. 이번 공동심화학습은 평소에 풍물을 가르쳐주시는 신하교 선생님께서 특별 강의를 맡아서 진행해주셨습니다. 함께 장구를 들고 이것저것 다양한 민요들과 그 의미를 배우며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히 도보여행을 준비하며 몸과 마음을 다잡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과격한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텐트를 포함한 물품의 점검도 끝냈으며, 모둠별로 반찬과 식사 준비도 착착 진행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이것저것 지시하고 시범을 보이는 선배들이 더욱 듬직하고 멋져 보입니다. 여행연습 차원으로 이곡초까지 걸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힘든 여행이 될 것이지만, 그만큼 어려움을 극복해낸 자부심과 극기심을 익힐 수 있을거라 기대해봅니다. 안전히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 우리 함께 봄을 느껴 봐요

어린이학교 교사 생활이 17년차입니다. 가끔씩 그때 사진을 보면  
아니 작년 사진만 봐도 젊었다는 걸 느낍니다. ㅎㅎ^^ 제가  
아이들을 원래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이들과 수업 하다 보니 아이들을  
기(氣)를 먹는 교사가 되었답니다. 2025년 3월에 1학기가 시작되고  
열심히 달렸는데 벌써 4월이 훌쩍 지나려합니다.

올 초에 전교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을 정했는데 'LTSS  
(Listening · Thinking · Speaking · Sharing)' 올해 새롭게 개설된  
수업으로서 경청하고, 생각하고, 발표도 하는 주제 탐구 시간을  
가지기로 했답니다. 3주씩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는 '봄 이야기' 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봄에 맞는 절기, 봄 향기 가득한 봄채소의 효능,  
봄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축제가 있는지, 썩을 함께 뜯고 집에서  
음식하고 만드는 순서도 알게 되었고, 먹어보며 후기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썩으로 만든 음식이 참 다양하였습니다. 썩전, 썩된장국,  
썩해물탕, 썩라면, 들깨썩국, 썩버무리, 썩스콘, 썩대구탕 등등~  
밀가루가 없어 전분으로 만든 썩전은 떡도 아닌 전도 아닌 음식이  
되었지만 아이는 맛있어서 다 먹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썩국을  
오랜만에 드셔서 참 좋았다는 평, 이런 숙제를 내 주셔서 감사하는  
평, 썩국이 처음이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도 엄마가 해 주시던 썩버무리,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할머니께서 해년마다 손녀를 위해 직접 뜯은 썩으로 만들어  
주신 썩떡과 시비름 무침이 무척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봄 이야기를 여기에 쓰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사랑방의  
모든 식구들이 봄을 느끼며 봄을 만끽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현숙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84장, 321장

성 경 : 요한복음 8장 31~47절

말 씬 : 진리에 속하라

###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위해 < 디지털 선교를 위해서 >  
디지털 선교에 물자나 인력, 또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적절히 지원  
되어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곳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  
한국교회와 공동체들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굳건히 함으로 사회  
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 1)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한번 사랑방의 부르심을 다질  
수 있도록.
  - 2) 김영화권사님 허리디스크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 <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체 마당에 새로 모래사장을 만들고 트램플린 바닥공사와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학생들의 바깥놀이도 많아지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주간 중에는 이음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두분이 방문하셨고, 공  
동체에서 함께 생활했던 울리안 청년이 오래간만에 한국에 와서 공동  
체에 방문했습니다. 또한 임채정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점점 공동체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성껏 잘 맞  
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